

통일 그림동화

리혜리와 이혜리

전현정 글 | 최정인 그림



<비매품>



9 791196 477516
ISBN 979-11-964775-1-6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글 전현정

대학에서는 집 짓는 법을 배웠고, 엄마가 돼서는 동화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글 짓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근사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절대 에너지는 동화책 속에 꼭꼭 숨어 있다고 믿으며, 지금도 열심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똥보 클럽》으로 제19회 황금도깨비상을 받았고, 지은 책으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헬로 오지니》《니체 아저씨네 발레교실》《폴리처 선생님네 방송반》《한밤의 철새통신》《오색 찬란 아프리카는 검지 않아》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남극세종기지설립 30주년 기념 남극체험단으로 선정되어 남극세종기지와 남극특별보호구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림 최정인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동화 속 개구쟁이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 책으로는 《그림 도둑 준모》《바리공주》《반창고 우정》《미움 일기장》《살아난다면 살아난다》《오시큰둥이의 학교생활》《지구개 따먹기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혜리와 리혜리

글 전현정 그림 최정인

디자인·제작 주니어김영사 031-955-3100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주소 01018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6 홈페이지 www.unideu.go.kr

발행일 2018.12.

ISBN 979-11-964775-1-6 <비매물>



イ・ヘリ と リ・ヘリ



おひさまぐみの イ・ヘリは わたしひとりでした。あこがえるまでは。

せの たかいヘリが きたひ、わたしは こいぬだつて むしだつて こわいのに、しっかりものヘリになって、あたらしく はいたたヘリはりこうなヘリになりました。



おひるの じかん、グリーンピースごはんが できました。どうして わたしの ごはんだけ いつも まめが おおいのかしら、アリの すから つぎから つぎへと アリが でてくるように まめは よけても よけても また でてきます。

りこうな ヘリは グリンピースごはんを ひとくちで ぼくつと たべて ほうれんそうの ナムルも よく たべます。「りこうなヘリは すききらいせずに ちゃんと たべぬね、せんせいの ほめことばに ヘリが こりにと わらいます。わたしは このよで まめが いちばん ますいのに、ヘリは まめが ほんとうに おいしいのかしら？」



セヨンちゃんと ブロックあそびをしていた ときの ことでした。さいごの ブロックをつめば おうちが かんせいという そのとき、りこうなヘリが わたしの てを ポンと はたいて とおりすぎました。そのせいで ブロックが ガラガラと くずれてしまいました。「ヘリちゃんのせいで くずれたらどうしよう、わたしが おおごえを だしたのに、りこうなヘリは あやまりもしないで きょうしつ の そとに いそいで でていってしまいました。」



おりがみの じかんでした。「すきな どうぶつをおって なまえを かいてみましょう」ちゃんと せんせいが おしえてくれた とおりにつくったのに、ウサギは キツネに、ツルは ニワトリに なってしまいました。ほかの こたから なんの どうぶつか きかせるのが いやで、いそいで なまえを かきました。

わたしが ウサギと ツルをおっている あいだ、りこうなヘリは ライオンを じゅっこの いじょうも おりました。「ほんものの ライオンみたい、みんながヘリのまわりに あつまつて じぶんの ぶんも おって ほしいと ねだりました。」



ちずの バズルあそびをしました。わたしは おうちで すんでいる ところの バズルの ピースを みつけて、ちずの うえにおく あそびです。

ヒョンちゃんのおいちゃんのおうちは ナムヘ、セヨンちゃん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 プサン、ヒョミンくんのおじさんのおうちは バジュで、わたしの 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 チェジュです。そして、りこうなヘリ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 ケソンだそうです。わたしの 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 いちばん したで、りこうなヘリ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 いちばん うえに あります。



ふつかごは チュソクです。しんせきが すんでいる ところの バズルも ヒョミンくんも、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について ようちえんに きませんでした。

わたしの かぞくは ことしの チュソクにも、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には いきません。バムとママのおもちやさんは、さいじつが いちばん いそがしいんです。



ほかの こは みんな おうちにかえて きょうしつには、りこうなヘリと わたしだけが のこりました。ほんを すこし よんで とじました。「まだ ぜんぶ よんでないでしよう、りこうなヘリが わたしを じつと みました。わたしの かってでしよう、ほんとで、わたしは なせか いじわるになりました。ママは きょうにかぎって なんて こんなに おそいんだらう？ ようちえんの げんかから、チャイムの おとが きこえました。きっと ママだ、ママの あしおとが した、わたしは むちゅうで はしっていきました。でも…… ママじゃなかった。」



また チャイムの おとが しました。こんどは きつと ママよ、ところが ドアを あけて はいつてきたのは、りこうなヘリでした。なきたくないのに、ポロポロ なみだが できました。「ヘリちゃん、いっしょに おりがみしない？」りこうなヘリが かばんの なかから あかいいろがみを とりました。ヘリと ならんで すわって おりがみを していたら、いつのまにか さかなが にひき できていました。さかなを みていたら「あかい さかなの、ほんの ことを おもいだしました。あかい さかなの、ほんは、りこうなヘリが まいにち よんでいる ほんです。」



ふたりのヘリは ゆっくり ゆっくり、ほんを よみました。

リ・ヘリ と イ・ヘリ



おひさまぐみには わたしの ほかにヘリが もうひとりいます。

わたしは、ほんを よむのめ ただどしくても、じかくのめ へたなのりに、りこうなヘリになって、ほんを よむのが、じょうずでも、きれいに かけるヘリは、しっかりものヘリになりました。



おひるの じかん、また キムチが できました。キムチは どうして こんなに かいのかしら、おみずで あらって、ふうふう 吹いても なみだが できるほど かわいらしいです。

しっかりものヘリは、キムチを あらいても、ふうふうと ぶくこともなく、よく たべます。「しっかりものヘリは、かいのかよく たべられるわね、せんせいの ほめことばに、ヘリが、とくいげな、かおを、します。わたしは、キムチが、かさんよりも、かいのか、ヘリは、キムチが、ほんとうに、かわらないのかしら？」



ミンジちゃんと あやとりをしている ときの ことでした。むしが いっぱい、しっかりものヘリの、せなかに、くっついていました。むしが、もぞもぞと、うごいて、しっかりものヘリの、ての、のぼろろとしていました。わたしは、しっかりものヘリの、てを、ポンと、はたきました。わたしは、しっかりものヘリの、てを、ポンと、はたきました。

しっかりものヘリが、ぼつと、たちあがって、ブロックが、くずれました。その、はずみで、むしが、ブロックに、つぶされ、そうになりました。わたしは、きょうしつ、の、そと、には、しつて、いって、かだんに、さいいて、はなの、うえに、むしを、のせて、あげました。



きょうは、おりがみで、どうぶつをつりました。わたしは、おうちで、すんでいる、ところの、ウサギも、キツネも、ライオンも、なんでも、ひとりづつ、つきました。でも、かける、もしが、ライオン(内子)しか、なかったから、ライオンだけを、おろつづけました。

しっかりものヘリは、もう、ぜんぶ、おりおって、どうぶつ、の、なまえも、かきおわりました。しっかりものヘリは、ニワトリ(鶏)みたい、な、むずかしい、ものも、すらすらと、かけます。



ちずの、バズルあそびを、しました。しんせきが、すんでいる、ところの、バズルの、ピースを、みつけて、ちずの、うえに、おく、あそびです。

ミンジちゃんのおばあさんのおうちは、チュンジュ、チンギョクくんのおいちゃんのおうちは、ウリルンどう、ハヨンちゃん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テジョンで、わたし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ケソンです。そして、しっかりものヘリ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チェジュと、うたうたです。わたし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いちばん、うえで、しっかりものヘリの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いちばん、したに、あります。



ふつかごは、チュソクです。ミンジちゃんも、チンギョクくんも、ハヨンちゃんも、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について、ようちえんに、きませんでした。でも、しっかりものヘリは、ようちえんに、きませんでした。

わたしの、かぞくは、ことしの、チュソクにも、おばあちゃんのおうちは、プサンよりも、チェジュと、うらうら、ちかひの、いけない、ところ、なんだ、うたうたです。



ほかの、こは、みんな、おうちにかえて、きょうしつには、しっかりものヘリと、わたしが、のこりました。しっかりものヘリが、ほんを、よむ、こえに、みみを、すましています。ヘリは、ほんを、よむ、ものが、とても、はやく、いそいで、でも、きょうは、ほんが、おもろくない、みみです。「ママ、」ヘリが、ドアの、ほうに、はしって、いきました。でも、ドアを、あけて、はいつてきたのは、わたしの、ママ、でした。



ようちえんを、でようとする、すずりなく、こえが、きこえました。わたしは、ママの、てを、ひっぱりました。「わかった、わりヘリ、ここで、まってるから、もう、さし、あそんで、きなさい、」ドアを、あけると、しっかりものヘリが、ドアの、まえに、たつて、いました。わたしと、めが、あつた、ヘリは、また、なま、はじめました。わたしは、しっかりものヘリと、おりがみを、しました。ママを、まってる、とき、おりがみを、おっている、と、ふしぎと、ママが、すぐ、かえってくる、さかなを、にひきも、おつたから、しっかりものヘリの、ママも、もう、すぐ、くる、はず、よ。しっかりものヘリが、「あかい、さかなの、ほんを、もって、きました。わたし、が、いちばん、すきな、ほんです。」



ヘリとヘリは、もう、すこし、いっしょに、いたく、なつた、の、です。

리혜리와 이혜리

전현정 글 | 최정인 그림



햇님토리반에는 나 말고 헤리가 한 명 더 있어요.

나는 책 읽을 때도 더듬거리고 글씨도 잘 못 쓰는데
똥똥한 헤리가 됐고요.

책도 잘 읽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는
헤리는 씩씩한 헤리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또 김치가 나왔어요.
김치는 왜 이렇게 매운 걸까요.
물에 씻고, 호호 불어 봐도
눈물 나오게 매워요.

썩썩한 혀리는 김치를 씻지도 않고
호호 불지도 않고 잘 먹어요.
“썩썩한 혀리는 매운 것도 잘 먹는구나.”
선생님 칭찬에 혀리가 어깨를 으쓱해요.
나는 김치가 화산보다도 더 매운데
혀리는 김치가 진짜 안 매운 걸까요?



민지랑 실 꿰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벌레 한 마리가 씩씩한 헤리 등에 딱 붙어 있었어요.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더니
씩씩한 헤리 손에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나는 씩씩한 헤리 손을 툇 쳤어요.



씩씩한 헤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블록이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벌레가 블록에 깔릴 뻔했어요.
나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와
화단에 핀 꽃 위에 벌레를 올려 줬어요.



오늘은 종이접기로 동물을 만들었어요.
나는 집에서 매일 종이접기를 해서
토끼도 여우도 기린도 사자도
혼자 다 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글자가 사자밖에 없어서
사자만 접고 또 접었어요.



씩씩한 헤리는 벌써 종이접기를 다 하고
동물 이름도 다 썼어요.
씩씩한 헤리는 '닭'같이 어려운 글자도 척척 잘 써요.



지도 퍼즐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친척들이 사는 곳 퍼즐 조각을 찾아
지도 위에 올려놓는 놀이에요.

민지 고모 집은 전주,
진규 할아버지 집은 울릉도,
하영이 이모 집은 대전이고,
우리 할머니 집은 개성이에요.
그리고 씩씩한 혜리 할머니 집은 제주도래요.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일 위에 있고,
씩씩한 혜리 할머니 집이 제일 밑에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추석이에요.
민지도 진규도 하영이도
할머니 집에 가서 유치원에 안 왔어요.
그래도 씩씩한 헤리는 유치원에 왔어요.



우리 가족은 올 추석에도 할머니 집에 못 가요.
개성은 부산보다 제주도보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이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에는 씩씩한 헤리와 나만 남았어요.
씩씩한 헤리가 책 읽는 소리에 귀를 쫓긋 세웠어요.
헤리는 책을 엄청 빨리 읽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책이 재미없나 봐요.
“엄마!”
헤리가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유치원을 나서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아당겼어요.
“알았어, 리혜리. 여기서 기다릴 테니 더 놀다 와.”
교실 문을 여니 씩씩한 혜리가 문 앞에서 있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친 혜리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씩씩한 혜리와 종이접기를 했어요.
엄마를 기다릴 때 종이접기를 하면
신기하게 엄마가 금방 돌아와요.
물고기를 두 마리나 접었으니까
씩씩한 혜리 엄마도 곧 올 거예요.
씩씩한 혜리가 빨간 물고기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헤리와 헤리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어했어요.



두 헤리는 아주 천천히 책을 읽어어요.

또 뽀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곧명의 엄마일 거예요.

그런데 문득 옆고 들이온 사람은 뽀뽀한 혜리였어요.

안 뽀고 싶는데 자꾸만 노뽀이 났어요.



“혜리야, 우리 응이접기 할래?”

뽀뽀한 혜리가 가방에서 뽀뽀 색종이를 꺼냈어요.

혜리와 나란히 앉아서 응이접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뽀뽀기 두 마리가 완성됐어요.

뽀뽀기를 보니 뽀뽀한 혜리가 왜이 생각났어요.

뽀뽀한 혜리가 왜이 뽀뽀한 혜리가 매일 보는 혜리예요.





아이들 모두 침으로 돌아가고
교실에는 툭툭한 혜리와 나만 남았어요.
책은 조금 읽다가 떨어졌어요.
“다 안 읽었잖아.”
툭툭한 혜리가 나를 툭끄러미 쳐다봤어요.
“내 마음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엄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을까요?
유치원 원관에서 벨 소리가 났어요.
곧뎚 엄마를 거예요.
우리 엄마 툭자국 소리가 났거든요.
나는 한탄음에 툭려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냐예요.



이들이 지나면 추억이에요.
 희영이도 세연이도 현민이도
 할머니 집에 가서 유치원에 안 왔어요.
 우리 가족은 룬 추억에도
 할머니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빠 엄마 떠났을 때 제일 바쁘거든요.

지도 퍼를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친척들이 사는 곳을 조각을 찾아
지도 위에 올려놓는 놀이예요.

희영이 할머니가 할머니 집은 당해,
세연이 할머니 집은 부산,
현민이 삼촌 집은 파주고,
우리 할머니 집은 제주도예요.
그리고 뽕뽕한 혜리 할머니 집은 개성이에요.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인 민에 있고
뽕뽕한 혜리 할머니 집이 제인 위에 있어요.





내가 토끼와 학을 접는 동안
 뚝뚝한 헤리는 사자를 열 개도 넘게 접었어요.
 “진짜 사자 같다.”
 아이들은 헤리에게 달려가
 자기 것도 접어 달라고 떼를 썼어요.



들이접기 시간이었어요.
 “축하하는 동물용 접고 이틀을 쓰세요.”
 끝없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토끼는 여우가 되고, 학은 닭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무슨 동물이라고 물어볼까 봐
 뚝 이틀을 썼어요.

세연이랑 블록 놀이를 할 때였어요.
마지막 블록을 쌓고 집이 완성되려는 순간,
그 바람에 블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내가 소리 질렀지만 툭툭한 해리는 사과도 안 하고
교실 문 밖으로 뛰 나가 버렸어요.



점심시간에 완두콩밥이 나왔어요.
왜 항상 내 밥에만 콩이 많을까요.
개미집에서 개미가 자꾸자꾸 나오는 것처럼
콩은 쿨라내고 쿨라내도 또 나와요.

물류한 혜리는 완두콩밥도 크게 한 입 떠서 먹고,
지금치나물도 잘 먹어요.

“물류한 혜리는 콩고루 잘 먹는구나.”
선생님 칭찬에 혜리가 씩 웃어요.
나는 우주에서 콩이 제일 맛있는데
혜리는 콩이 진짜 맛있는 걸까요?



헛님토리만에 이헤리는 나 혼자였어요.
그애가 오기 전까지는요.

키가 큰 헤리가 온 칫날,
나는 강아지도 별레도 무서워하는데
썩썩한 헤리가 됐고요.
새도 온 헤리는 툭툭한 헤리가 됐어요.





전환점

우리가 열원하면 돌일이 이제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님과 북은 언어도 문화도 생각도 달라졌고,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만큼이나 서로가 낯설어졌습니다.

돌일을 주제로 한 많은 동화들이 '다름'이 '바라본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리와 리혜리》는 '다름'이 '이해리'가 본 북한이 '이해리'가 본 북한이 '리혜리와 이해리'가 바라본 '다름'이 아니라, 두 시선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출어하는 등식도 다름 두 해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물해 비록 지금도 남북과 북이 나눠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는 메시지를 잘 전하고자 합니다. 님과 북의 어린이가 북을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먼저 만나서 돌일을 돌돌 돌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말



공농민공을
공공을



공공공공 | 공공공공

하리하리 하리하리

공공공공 공공